

# 강진 '백운동전시관' 준공...지역 관광 활성화 시동

정약용과 원주이씨 우애 유물 전시  
탐방로개설·야외쉼터 시설 설치 등  
지역 핵심 관광지 자리매김 목표  
월출산·백운동원림 자연경관 활용

오는 10월 4일 강진의 새로운 문화 시설인 강진 '백운동전시관' 준공식이 열린다. 다산 정약용 선생과 원주이씨 우애의 유물을 상설전시하고 전시관을 기점으로 월출산 탐방로 등을 구축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월출산 인근에 위치한 백운동전시관은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지하식 구조로 설치돼 명승인 백운동 원림과 어우러진 양식으로 건축됐다.

이 지역은 원주이씨 문중이 대를 이어 살고 있는 터전으로 강진군은 2017년부터 원주이씨문중과 함께 이 지역을 강진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강진백운동전시관은 지상 1층, 지하 2

층 규모로 연면적 1507㎡, 건축면적 920㎡으로 주요 시설로는 상설전시실, 티가든, 뮤지엄숍, 체험학습실, 수장고 등 국립박물관 못지않는 규모와 시설을 자랑한다.

전시관 지상 1층은 티가든을 중심으로 체험학습실, 뮤지엄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관이 가장 좋은 장소이다. 상부를 포함한 주변이 대부분 유리로 돼 있어서 월출산과 백운동원림의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으며 상쾌한 개방감으로 인기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 1층 전시실은 현대 작가의 설치미술품과 함께 보물급 유산인 동강공이 의경 초상화 진본과 함께 이의경이 사도 세자에게 하사받은 시가 전시돼 있다.

상설전시실로 들어서면 백운동원림 홍보 영상 '백운동 시간의 길' 코너로 회의실과 영상실을 겸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나온다.

이곳을 지나 상설전시실 본관으로 향하면 백운동 건물을 모티브로 한 디오라마와 유유자적하는 처사의 여유로움을



강진 백운동전시관. 백운동전시관이 오는 10월4일 문을 연다.

강진군 제공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이 전시돼 있어 관람객들로 하여금 현장감 있는 전시환경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다산 정약용과 깊은 우애를 알 수 있는 유물을 포함해 100여점의 원주이씨 소장 유물을 만날 수 있다.

백운동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인 '디지털 강진의 빛'은 환상적인 빛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영상으로 압도적인 몰입감과 영상미로 관람객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강진원 강진군은 "강진백운동전시관을 시작으로 월출산 탐방로 개설, 야외쉼터 설치 등연속 사업이 예정돼 있고 강진 숲 체험 인프라 조성사업과 같은 굵직한 사업으로 월출산 권역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형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가 풍부한 강진의 핵심 관광지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팔금도 트레킹 페스티벌 연다  
신안군, 내달 12~13일

신안군은 오는 10월 12일과 13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금면 일대에서 '팔금도 트레킹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팔금면에 진행하고 있는 세대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신안군과 프로그램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는 코끼리협동조합 주관으로 서근동대, 채일봉, 원산리 등 팔금면의 대표적 자연의 비경을 품은 지역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트레킹 코스는 해안로와 임도길을 따라 채일봉으로 이어지며 팔금면의 대표 색상인 노란색을 상징하는 황금사철과 은행나무로 조성된 2km의 은행나무길을 지나게 된다.

이번 축제가 남다른 것은 각 포인트마다 숨어있는 미션을 수행하며 포인트를 획득한다는 것. 미션으로는 퀴즈풀기, 미니게임 참여, 시식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기념품과 경품이 제공된다. 획득한 포인트는 트레킹 종료 후 포인트에 따라 추첨과 이벤트를 진행하고 특별한 식사와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진행되는 부대행사로 실크스크린, 각인, 워빙, 자수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들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메이크샵노이즈를 통해 온라인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신안군에서는 귀어·귀촌을 돕는 홍보 부스도 운영해 관심 있는 분들에게 신안군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안-홍일갑 기자

신안군 '리브컴 어워드' 결선 진출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들과 경쟁

신안군은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하는 '2024 리브컴 어워드(LivCom Awards)'에서 결선에 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리브컴 어워드는 1997년부터 시작된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인하는 세계적인 권위의 국제대회다.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도시의 환경관리, 커뮤니티 활성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사회적 포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세계적 권위의 대회인 만큼 세계 각국의 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결선에 진출한 도시는 각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발표한다.

결선에 진출한다는 것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국제적 인정을 받는 것으로 신안군의 지속가능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안군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문화·예술이라는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기반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신안군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1·2산업의 지속적 지원을 통해 가계소득의 안정과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기후변화 대응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이다. 신안군에서 가장 많은 자연의 조각 햇빛, 바람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노력하고 그로 발생된 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한다. 이런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

이번 리브컴 어워드 결선 진출은 앞선 CNN을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신안군의 퍼플섬과 더불어 국제적 도시의 위상을 한 층 더 높이고 있다.

결선 결과는 11월 중 발표 예정이며 이 기회를 통해 신안군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표본을 전 세계에 선보일 계획이다. 신안-홍일갑 기자



무안군 해제면 복지기동대 회원들이 학암마을에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가정을 찾아 천장과 벽면 도배지를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 봉사활동을 펼쳤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해제면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개선 서비스

무안군 해제면 복지기동대(대장 황인섭)가 지난 23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방문하여 생활 불편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24일 무안군 해제면 복지기동대에 따르면 대상 가구는 학암마을에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으로 천장과 벽면의 도배지

가 낡고 훼손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동대원들은 도배지를 교체하고 집안 정리를 하며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황인섭 대장은 "생업으로 바쁜 가운데 이렇게 봉사활동에 두 손 건어붙이고 참여해 준 기동대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

속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영 해제면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해주신 복지기동대에 감사드립니다"며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주민이 함께하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강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지역 경제 선순환 도모

강진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진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상품권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추석 명절 전인 지난 13일 강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금지 캠페인을 강진읍 일원에서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진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된 상품권이다.

하지만 간혹 일부 상점과 사용자들에 의해 물건이나 용역의 거래 없이 환전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는 등 부정 유통을 '불법'이라는 자각없이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군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하고 상품권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개최하게 됐다.

군은 9월 한달간 강진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10%에서 15% 할인율을 높여 판매 중이다.

이에 따라 9월 중순 현재 구매액이 8월 같은 기간보다 두 배를 웃돌고 있어 많은 이용을 입증하고 있다. 강진-김윤복 기자

'제47회 전남 민속예술 축제' 완도서 열린다

전남도민의 전통 민속예술 잔치인 '제47회 전남 민속예술 축제'가 오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완도군 농어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전남 민속예술 축제는 지난 1966년 남도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으며 도내 향토 민속예술을 발굴·전승하며 도민간 문화와 정을 나누는 민속예술 행사다.

전남도와 완도군이 주최하고 전남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도내 17개 시군에서 일반 및 청소년

년부 20개 팀(940여 명)이 참가해 농악, 민속놀이, 전통한춤 등의 종목에서 열띤 경연을 펼친다.

축제 첫날인 30일에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완도군의 '생일도 팔광대 놀이' 등 7개 시군 참가 팀이 경연을 펼친다.

둘째 날 10월 1일에는 순천시의 '순천오장 상여놀이' 등 7개 팀의 경연과 제46회 전남 민속예술 축제에서 대상을 받은 '하순농주들소리'의 특별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10월 2일에는 구례군의 '호남 여성 농악 판굿' 등 3개 팀의 공연과 '청해진 열

두군고' 및 '전남도립 어린이 국악단'의 초청 공연이 진행되며 시상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대상을 수상하는 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한국 민속예술 축제에 전남도 대표로 출전해 남도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완도군에서는 축제 기간 동안 특산품 코너, 인생 네 컷 부스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여 참가자와 관람객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완도-정태영 기자

